



김동원 총장, 희망캠페인 릴레이 참여

“보고 싶다 전대인, 힘내라 대한민국!”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은 17일 ‘희망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 희망캠페인 릴레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함이다.  
김동원 총장은 이날 “여러분 없으면 봄도 없습시다”라는 감성적인 문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과, 또 비대면 수업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위로와 애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은성 기자



함께하는 전북농협, 이웃사랑 반찬나눔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농협 남원시지부(박노현 지부장),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회장 이경자)는 지난 17일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배추김치, 파리고추볶음, 진미채 등 3종류의 반찬을 직접 만들어 “이웃사랑 반찬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준비된 반찬은 남원시를 통해 취약계층과 홀몸어르신 200가구에 전달됐다.  
박노현 지부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반찬 나눔으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할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바쁜 농번기 영농철에 나눔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농가주부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HRC학생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개최

전북대 총장, 우수학생 기숙형 대학 신입생 100명과 화상 만남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우수학생 기숙형 대학(Honors Residential College·이하 HRC)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16~17일 이틀 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HRC는 Honors Residential College의 약자로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줄이고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대만의 특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기존에 숙식만 해결했던 생활관을 교육과 주거가 결합된 우수 인재양성 공간으로 바꾼 혁신적인 교육제도다.  
학생들은 생활관에 거주하면서 학업은 물론 문제해결 능력과 리더십, 팀워크를 기르며, 아시아대학 교육연합 교환학생 파견과 같은 우수인재 양성 아시아대학 교육 연합 교환학생 파견과 같은 우수인재 양성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갖춰야 할 기본기를 기르게 된다.  
학생들은 4년 학부과정 동안 기숙사비 면제, 어학교육 지원, HRC 교과·비교과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장학지원을 받는다. 특히 지난 2월 선발한 HRC에는 100명 모집에 607명이 지원해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틀간 열린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북대 진수당 351호에 마련된 최첨단 화상강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강의실에는 김동원 총장과 박준호 혁신교육개발원장, 안동춘 혁신교육개발원 부원장, 혁신교육개발원 관계자 등이 배석했고, 학생들은 실시간 ZOOM 접속을 통해 대학 관계자들을 만났다.  
HRC 학생대표 서정환 명예학생의 선서를 시작으로 김동원 총장의 축사와 함께 HRC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 등이 이어졌다.  
김동원 총장은 실시간 화상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우리대학은 HRC를 더욱 발전시켜 학부와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진학형 교육과정과 기업과 연계한 산학형 교육과정을 신설해 Honor Student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립예술단, 코로나19 성금 500만원 기부

전주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예술공연을 펼쳐 온 전주시립예술단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전주시립예술단지회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을 위로하기 위해 성금 500만 원을 전주시에 기탁했다. 시는 전달된 성금을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방침이다.  
김성택 전주시립예술단지회 노동조합 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함께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예술단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성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립예술단이 시민들에게 치유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려는 마음을 모인 것이라 의미가 있다”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시민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는 예술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립예술단은 우울감과 무기력감 등 ‘코로나 블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위한 창작곡을 제작해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토닥토닥 힐링공연’도 계획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제60주년 4.19 혁명기념 참배 진행

남원시는 19일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금지면 응정리 김주열 열사 묘역 참배를 진행했다.  
이날 참배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기념식은 취소하고 참배로 대신하였으며, 시 간부 공무원과 김주열기념사업회 임원진 등 10여명만 참석했다.  
참배는 추모각과 김주열 열사 묘역에서 분향과 헌화를 통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참된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김주열 열사는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 규탄시위 중 행방불명되었다가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 윗바다에서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채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군자원봉사센터, 독거 어르신 500여명에게 밀반찬 전달

사)완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영석)는 지난 17일 ‘참! 좋은 사람의 밭차’를 활용해 완주군 관내 독거 어르신 500여명에게 밀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나눔을 실천했다.  
참! 좋은 사람의 밭차는 지난 2월에 선정된 밭차로써 BK 기업은행에서 후원하고, 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진행 중인 사업이다.  
센터협의회에서는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전국 30개 기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차량 한 대를 인수받아 운영을 희망하는 센터들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2020년 완주군자원봉사센터가 최종 선정 됐다.  
또한, 밭차에 필요한 재료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올 한해 3,400만원의 무료급식비 예산을 함께 지원 받았으며, 앞으로 매년 지원될 예정이다.  
‘참! 좋은 사람의 밭차’는 매주1회 완주군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으로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정성을 담아 진행될 계획으로 특히, 어르신, 장애, 아동, 다문화 등이 수혜자가 되고 이를 통해 완주의 복지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전국 어디에서든 크고 작은 재난이 일어나 협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재난 현장에도 긴급 투입될 계획이다.  
이번 밀반찬 나눔은 센터와 센터소속의 미(味)인음식봉사단, 우석대 외식 산업조리학과가 함께해 완주군 130여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직접 배달했다.  
한편, 이번에는 500여명이 수혜를 받았지만, 앞으로 밀반찬 나눔을 추가로 2회 더 진행하여 완주군 독거어르신 1,500여명에게 밀반찬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영석 이사장은 “이번 밀반찬 나눔 활동은 현재 코로나19로 힘들어 하고 계시는 완주의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해 꾸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0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8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효리지사 010-6645-9935	필북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38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38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22-6157
	익산지사 659-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대, '지역기업 Dream-JOB 인재풀 제도' 운영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도내 기업과 청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지역기업 Dream-JOB 인재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기업 Dream-JOB 인재풀'은 취업할 의지를 갖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도내 우수 기업을 알리고 채용행사(박람회, 채용설명회, 지역기업 탐방, 현장면접 등)와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대학교 4학년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담 시 설정된 희망직무와 연봉 등에 따라 맞춤형 채용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전담 컨설턴트의 1:1 집중 상담과 수준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내년 2월 26일까지 운영되며, 신청은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063-220-4723)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